

저지종으로 임실N치즈 명품화 속도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약 통해 저지종 젖소 4두 추가 도입...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 강화

임실군이 프리미엄 낙농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저지(Jersey)종 젖소 4두를 추가 도입하며 고품질 원유 생산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입식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체결한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구축 업무협약(MOU)'에 따른 단계적 추진 성과로, 임실군은 2024년 1두, 2025년 6두에 이어 이번 4두를 포함해 총 11두의 공란우 활용을 위한 저지종 젖소를 확보하게 됐다.

군은 확보한 개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저지종 젖소 번식 및 보급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은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와 협력해 임식 개체를 '공란우(수정란 생산용 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생체 내 난자흡입술(OPU)을 적용해 생감별 수정란을 자체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에도 국립축산과학원으로부터 생감별 수정란 30개를 추가 지원받을 예정으로, 저지종 혈통의 안정적 정착과 개량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보급능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기술지원도 병행해 사육 안정성과 생



임실군이 프리미엄 낙농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군은 2024년부터 저지종 도입을 본격 추진해 현재 지역 낙농가를 포함해 총 37두의 저지종 젖소를 사육중이다. 저지종 원유는 일반 홀스타인 대비 유지방 함량이 15~20%, 칼슘 함량은 15~18% 가량 높으며, 유단백 함량도 충분히 숙성치즈와 발효유 제조에 적합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품미와 질감이 뛰어나 프리미엄 유제품 생산에 강점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지종에서 생산되는 A2(우유 단백질 베타카제인의 한 종류) 우유는 단백질 구조 특성상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제품 섭취에

민감한 소비자층에서도 관심이 높다. 과거 영국 왕실에 우유를 공급했던 품종으로 알려지면서 상징성과 품질을 동시에 갖춘 품종이라는 점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군은 이러한 저지종의 강점을 활용해 지역 대표브랜드 '임실N치즈'의 숙성치즈와 요구르트 품질을 한층 고도화한다는 전략이다. 고농축 영양 성분과 A2 원유 기반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구축해 프리미엄 유제품 시장에 선점할 계획이다. 임실N치즈 명품화 정책과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임실=전송영 기자



순창군이 지난달 26일 군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교육 상생 협력 '맞손'

순창군-전북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순창군이 지난달 26일 군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3월 개원 예정인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은 총사업비 173억 원이 투입된 체험형 유아교육시설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순창군이 협력해 조성했다.

향후 도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생애·놀이·문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토요가족체험 프로그램은 전국 단위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을 교육과 연계해 유아들에게 보다 풍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교육·체험 및 지역 연계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생태교육 프로그램 발굴 △전문 인력 및 교육 콘텐츠 상호 지원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순창의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현장 중심 체험활동을 강화해, 아이들이 지역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강해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유아교육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아교육은 물론, 지역과 함께 하는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구립유아종합학습분원이 순창의 교육·문화 자원을 아우르는 중심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역의 생태·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지역과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식

임실군은 지난달 25일 군수실에서 이재문 NH농협 임실군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분 NH농협은행 제휴카드 적립기금 6,748만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NH농협은행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군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와 보조카드, 보람카드, 공무원 복지카드 등 제휴카드 이용금액의 0.1%~1.0%를 적립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달한 적립기금액은 총 5억 9천만 원이다.

이재문 지부장은 "임실군과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지역 발전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금고 은행으로서 임실군의 농업발전 및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매년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기탁하는 NH농협 임실군지부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송영 기자

순창군,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순창군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렴은 겨울철과 초봄에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특히 고령층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균혈증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60%, 수막염의 경우 8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이다.

폐렴구균 백신은 침습성 감염을 60~70%가량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적극적인 접종이 권장된다.

이에 따라 군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23)을 1회 무료 지원한다.

접종을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천문과학관, '개기월식 특별관측회' 개최

남원시 천문과학관은 정월대보름인 3월 3일 밤 붉게 물드는 달을 관측할 수 있는 '개기월식 특별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기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면서 달이 지구의 본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천문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지구 대기를 통과한 붉은 빛이 달 표면에 반사돼 '블러드문(Blood Moon)'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광경을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천문과학관 야외주차장에서 시민 누구나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는 천체망원경 10대를 설치하고 전문 강사가 관측 과정을 설명한다. 관람객들은 달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해 완전히 붉게 변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관 내부에서는 월식 관측과 더불어 △목성 △페르세우스 이중산개성단 △별집산개성단 △오리은대성운 등을 600mm 대구경 망원경 관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라이브 중계도 병행한다. 유튜브 채널(@WildStar)을 통해 전문 해설과 관측 영상을 생중계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동시에 개기월식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 행사 특성상 우천·강풍·짙은 구름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인스타그램이나 남원시 관광시설과(063-620-8988)를 통해 개최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남원시는 정월대보름(3월 3일)을 앞두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민속 행사와 산간 지역 내 무속 행위가 성행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시는 전국적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이 잇따르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오는 3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불감시원 78명을 현장에 집중 배치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와 화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산불진화 임차 헬기를 상시 운영하고, 산림재난대응단 내 '신속대응반(13:00~20:00)'을 가동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